

기획논문

근대전환기 호남의 공론장과 유학적 관계망 : 호남학회와 『호남학보』를 중심으로*

• 황태욱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ORCID: <https://orcid.org/0000-0001-5676-5713>)

투고일 : 2019.10.21. / 심사완료일 : 2019.11.07. / 게재확정일: 2019.11.18.

요약

호남학회 성립 이전에 호남지역에서 상경한 뜻있는 인사들은 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권 회복을 갈망했다. 그러한 열망을 품은 당대 호남의 지식인들은 계몽 단체에 참여하여 활약하는 동시에 국운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경호남 지식인들은 호남지역의 계몽과 신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호남학회를 조직하였다. 호남학회를 근거지로 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특정 지향점을 공유하는 지식인 공동체가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본고는 호남학회 활동시기 참여자들의 공론장 형성 활동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론장의 주요 의사소통 행위자로 활약한 이들의 공론 표출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호남학회와 『호남학보』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식인 공동체의 성격과 유학적 관계망을 통한 호남 공론장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근대전환기 호남의 공론장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근대전환기, 호남학회, 『호남학보』, 공론장, 유학적 관계망

I. 서론

근대 전환기 한국 사회의 계몽 운동은 언론사나 각종 계몽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근대 신문과 잡지 발간, 강연회, 야학회 등이 계몽의 보급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이 논문은 2019년 8월 22일 “탈유교사회 정치문화의 비판적 자유”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와 한국융합인문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방식 이외에도 학회 활동과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애국계몽 운동에 앞장선 단체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1906년 4월에 조직된 대한자강회였다. 대한자강회는 서울 본회 이외에도 13개도에 지부를 갖춘 전국 단위의 지식인 단체였다. 이들은 자강독립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회지를 발간하고 강연회와 강습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내부 구성원들의 이질성과 노선 차이, 통감부의 탄압 등으로 결국 1907년 8월 해산에 이르게 된다.(홍인숙·정출현, 2010) 그러나 대한자강회의 해체는 지방출신 회원들이 이 된 지역학회가 차례로 출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들 학회는 대개 1906년~1909년의 4년 사이에 창립되었는데, 이 시기 학회지를 발행한 학회 단체는 대략 10여 개로 보인다.¹⁾ 그 가운데 하나가 호남학회이다. 당시의 학회는 지역과 학연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호남학회 또한 전라도 출신의 재경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1907년 7월 6일에 발기되고 조직되었다. 『호남학보』는 이러한 호남학회의 기관지로써, 1908년 6월 25일부터 1909년 3월 25일까지 제9호가 발간되었다. 이 당시 호남학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학회의 사업과 학술 활동에 참여하여 지적 연대를 넓혀 나갔고, 지식과 담론의 보급 등을 통해 학회의 지적 권위를 축적해 나갔다. 또한 호남 지회의 결성을 통하여 여론을 주도하고 민중들을 계몽함으로써 주권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은 호남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학회지의 발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호남학보』는 9호로 폐간될 때까지 줄곧 호남사회의 애국계몽을 주도했던 담론의 장이자 공론 형성²⁾의 공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호남학보』는 의사소통, 정보교환, 의견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학회 활동을 두고 매체와 회원 사이에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담론의 장을 보여주기도 한다.

1) 이 시기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학회와 학회지들은 다음과 같다. 평안남북도·황해도 중심의 서우학회(『서우』, 1906.12~1908.5), 평안남북도·함경도 중심의 서북학회(『서북학회월보』, 1908.6~1910.1), 전라남북도 중심의 호남학회(『호남학보』, 1908.6~1909.3), 경기도·충청남북도 중심의 기호학회(『기호학회월보』, 1908.8~1909.7), 경상남북도 중심의 교남교육회(『교남교육회잡지』, 1909.4)를 비롯하여 강원 지역의 관동학회, 충청도의 호서학회, 환경남도 영흥의 한남교육회, 평안남도 강동군의 오주학회, 경기도 개성의 개성학회 등의 학회가 설립되었으나 학보는 발행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일본 유학생들의 조직이었던 태극학회(『태극학보』, 1906.8~1908.12), 대한학회(『대한협회회보』, 1908.4~1909.3), 대학총학회(『대학총학보』, 1909.3~1910.5), 복고적 유교주의를 표방했던 관료 중심의 대동학회(『대동학회월보』, 1908.2~1909.7) 등이 있다.

2)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은 공중(公衆)들이 형성하고 공유하는 상호 담론의 장이다. 이 공론장의 형성은 서적, 신문, 잡지, 공연장, 광장, 문필가, 시집, 출판사 등의 근대적 제도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 제도 안에서 공론장의 개념은 확장되고 다원화되고 분화된다. 근대전환기 한국의 공론장 역시 이러한 근대적 제도들을 통해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호남학회와 『호남학보』는 이 전환적 체제 속에 호남이라는 계몽담론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공론장의 형성을 주도하게 된다. 공론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르겐 하버마스, 2001) 참조.

근대전환기 학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호남 학회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관심 자체가 적었고 이를 다루더라도 주로 학회 활동이 전반적으로 서술되거나(박찬승, 1994, 이현중, 1972, 정훈, 2019), 이기(李沂)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진균, 2012, 정승교, 1998, 정훈, 2017, 박종혁, 1995, 원재연, 2015) 그러나 다른 학회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호남학보』는 지역의 공중들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공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의 집결지로 자리했다. 다시 말해 사적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중들이 공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호남학회 활동시기 참여자들의 공론장 형성 활동을 기술하고자 한다. 공론장 형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공론장의 주요 의사소통 행위자로 활약한 이들의 공론 표출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학회와 학보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식인 공동체의 성격과 유학적 관계망을 통한 호남 공론장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근대전환기 호남의 공론장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공론장의 형성 과정과 공론 표출 양상

호남학회 성립 이전에 호남지역에서 상경한 뜻있는 인사들은 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권 회복을 갈망했다. 그러한 열망을 품은 당대 호남의 지식인들은 계몽 단체에 참여하여 활약하는 동시에 국운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경호남지식인들은 호남지역의 계몽과 신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호남학회를 조직하였다. 호남학회를 근거지로 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특정 지향점을 공유하는 지식인 공동체가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호남학회는 1907년 7월 6일 오후 2시 서울의 대동문화회관(大東文化會館)에서 발기인 강엽(姜曄)·백인기(白寅基)·고정주(高鼎柱)·윤경중(尹敬重)·이간(李侃)·박영결(朴榮結)·최우락(崔禹洛) 등을 비롯한 112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통하여 창립되었다.³⁾ 그리고 1910년 8월까지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학회의 발전 방안을 찾고자 무단히 노력하였다.⁴⁾

3) 「본회취지」, 『호남학보』 1호, 1908.6.25, 35쪽. 이하 기사 제목과 호수와 인용 쪽수만 밝힌다.

4) 『호남학보』의 중간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호남학회의 총회 광고와 관련 기사를 매달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호남학보』에 실린 회의록을 통하여 당시 결의된 회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회의록에서 눈에 띄는 결의 사항으로는 회관마련, 학보발간, 지회설립결정, 재경호남출신학생 조사, 강연회·연설회 개최, 회관에 법학강습소 설치, 측량학교 설립, 도내사립학교 및 교육실태 조사, 연조금 모집위원 파견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활동들은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이었지만 모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제는 학회 활동 및 학회지 생산 담론을 두고 제기된 몇 가지 공론 표출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회장 개선 문제

호남학회는 1907년 7월 6일 창립대회를 통해서 ‘본회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원 1인, 교육부장 1인, 재무부장 1인, 서기원 2인, 회계원 2인, 간사원 10인’(제5조)으로 정하고, 회장 이하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이 날 임원으로는 회장 강엽(姜曄), 부회장 강운섭(姜雲燮), 총무 백인기(白寅基), 서기 이시우(李時雨), 평의원에는 김낙구(金洛龜), 유진신(尹柱臣), 박영철(朴榮喆), 최우락(崔禹洛), 윤경중(尹敬重), 정규삼(鄭奎三) 등이 선출되었다.(제1회 회록, 1: 51) 창립 당시의 임원진 구성은 몇 차례의 총회를 거치면서 다시금 정비가 되었다. 1908년 2월 23일 총회에서 매듭지어진 임원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임원록, 1: 58)

〈Table 1〉 Executive list

Position	Name
Chairman	高鼎柱
Vice chairman	劉禧烈
Manager	姜曄, 朴榮喆
councillor	崔俊植, 梁會源, 具本淳, 金洛龜, 朴南鉉, 蘇錫政, 金鳳善, 尹敬重, 朴海昌, 金璟中, 鄭奎三, 梁漢默, 尹柱臣, 李石峴, 尹相五, 張命相, 韓南洙, 姜雲燮
Education director	李沂
Finance director	白寅基
clerk	李時雨, 鄭達永
Accountant	崔禹洛, 李 保, 張斗植, 朴準弼, 邊基續, 曹康煥, 李 俸, 李愚若, 尹光普, 鄭應處, 沈宜甲, 閔泳直, 李光秀
secretary	李根容, 禹成海, 李敬魯

다. 1910년 4월 28일자 ‘호남학회의 前途’라는 기사를 보면, 호남학회의 몇몇 인사들이 학회가 설립된 후 발전치 못함을 개탄하여 ‘유지연구회’를 만들어 확장 방침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때는 이미 학회의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1〉을 보면 고정주(高鼎柱)가 회장이 되면서 강엽(姜曄)이 총무로 내려왔고, 유희열(劉禧烈)이 부회장으로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주(高鼎柱)가 2대 회장으로 선출한 데는 고정명의 12대 후손이라는 가문의 배경과 고위 관직을 거친 명망가라는 점이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그러나 고정주는 자신의 문집 『春崗集』 연보에서 호남학회의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고정주는 낙향한 이후 후학들을 양성하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였을 뿐 학회 일에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

그런 때문인지 학회는 얼마 못가 정기총회를 갖고 이재량(李載亮)을 3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재량은 전주 이씨 종친으로서 1902년 종2품인 종정원경(宗正院卿)을 지낸 인물이었다. 고정주와 마찬가지로 명가의 후예로서 고위관직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호남학회 회장으로 추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재량 역시도 향리에 내려가 회장직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회장개선을 두고 회원들 사이에 논쟁이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포문을 연 것은 평의원 정응설(鄭應禿)이었다. 그는 10월 7일의 총회에서 회장 이재량은 향리에 있고 부회장 최우락(崔禹洛)은 사임을 청원하였으니 회장과 부회장을 모두 개선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기(李沂)는 부회장은 사임의 뜻을 밝혔지만 회장은 아직 사임의 뜻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개선은 불가하다고 맞섰다.(제22회 회록, 6: 55-56)

이에 강엽(姜曄)이 회장 이재량의 사임청원이 보고되었으므로 이를 처리하여 개선하고자 재차 주장하였다. 하지만 평의원 최동식(崔東植)이 회장 개선은 정기총회로 유예하고자 주장하면서 결론도 미뤄졌다.(제25회 회록, 7: 58) 12월 13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장개선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는 평의원 이경로(李敬魯)였다. 그는 회장이 비록 향리에 있어 시무는 못하지만 회장을 다시 바꾸는 것은 본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좋지 못하다고 말하고 개선 반대를 주장했다. 이기(李沂) 역시 이경로의 주장에 가세하여 지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에 강엽은 회장이 오랫동안 향리에 있어 사무처리에 매번 불편이 많으니 교체하여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가부 동수가 되었다. 결국 의장이 교체에 동의함으로써 다음에 개선하는 것으로 겨우 해결되었다.(제27회 회록, 8: 58)⁵⁾

5) “會長辭免請願에 對하야 李敬魯氏가 動議호되 會長이 在鄉하야 視務는 못하나 本會 諸般 影響으로는 不可輕忽遞改인즉 該 請願을 奉還호즈 호미 李沂氏가 再請호고 姜曄氏가 改議호되 會長이 久在鄉第하야 事務處理에 每多不便호니 不可不遞라 호미 崔禹洛氏 再請에 會長이 可否를 問호미 可否同數되야 會長이 改選動議

그러자 이번에는 최동식이 나서 학회가 어려운 처지에 당하여 갑자기 회장을 바꾼다면 도내 인심이 동요할 수 있으니 회장을 개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대의원 정해로와 이기도 개선 반대에 힘을 실었다.(제28회 회록, 8: 59)⁶⁾ 이에 정응설은 호남 학회가 문명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임원개선만으로 일을 삼아 제반 사무가 발전이 없으니 실로 개탄스럽다고 말하면서 임원은 총사임하고 일신 개량할 것을 제청하였다.(제 29회 회록, 9: 60)⁷⁾ 그러나 이기는 정응설의 주장을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이렇게 회장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이기를 중심으로 한 최동식, 이경로 등은 학회 혼란과 호남 민심을 내세우면서 회장 개선을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강엽과 최우락 등은 학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회장을 교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 세력의 충돌로 여러 차례 공론이 오고가고 의장이 표결까지 진행한 후에야 겨우 총사임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지난 11월에 개편되었던 임원진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전부가 바뀌게 되었다.

〈Table 2〉 Executive replacement list

Position	Name
Chairman	姜曄 → 高鼎柱 → 李載亮
Vice chairman	姜雲燮 → 劉禧烈 → 崔禹洛 → 劉禧烈 → 崔禹洛
Manager	白寅基 → 姜曄 · 朴榮喆 → 姜曄 · 尹敬重 崔俊植 ← 尹柱瓚 ← 尹敬重 · 劉禧烈 ←
Education director	李沂 → 曹康煥 → 梁會源 → 崔禹洛
editor-in-chief	李沂 → 朴海昌 → 李沂
A council chair	沈宜甲 → 崔俊植 → 張斗植

에 票決되다. 姜曄氏 動議에 會長選舉하는 方法은 來總會를 待하느 함이 崔禹洛氏 再請으로 可決되다.”

6) “會長改選事件에 對하야 崔東植氏 提議案에 今當本會成立艱難之時하야 會長을 遽行遞改면 道內 人心이 或致離乖 恐 故 改選案을 翻案하느 故고 李沂氏 動議에 會長請願을 姑爲留案하느 故 鄭海魯氏 再請으로 可決되다.”

7) “鄭應尙氏가 動議하기를 會中에 重大事件을 因하야 特別總會를 召集하랴면 前期一日에 評議會를 開하코 必經議決 後 召集하느 것이 本會規則이어늘 何不經議하코 經先集會가 實是妄率이오, 且 文明事業은 一無就緒하코 只以任員改選로 從事하야 諸般事務가 發展이 無期하니 實所慨歎이라, 一體 任員을 摠辭任하코 一新改良하느 함이 李時雨氏가 再請하코 李沂氏가 改議하기를 以會長 一人으로도 不得其人하야 不能選定이어늘 摠辭任이 不可라 함이”

〈Table 2〉를 통해 호남학회 회장단의 면면이 계속 바뀌어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회칙규정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있었으나 수시로 교체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앞에서 본 정응설의 주장은 호남학회 창립 이후 임원진이 자주 교체되고 교육 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임원진이 임원직을 잘 수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근대전환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임원들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학회 활동을 전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공론을 주도했던 핵심 임원들이 호남학회의 운영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입장은 앞서 본 회장 개선 문제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핵심 임원들의 분화는 대체로 신분적 성향(양반과 중인 출신)과 지역적 성향(전북과 전남 출신)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양반) 출신 회장의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강엽과 정응설이 전북 익산과 여산 지역의 중인 세력이었다는 점은 그러한 호남학회의 이질적 성격을 웅변해준다. 종국적으로 호남학회 회장 개선과 임원진 구성의 문제는 학회활동의 중심축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재정 운영 문제

호남학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는 학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활동자금을 마련하는 문제였다. 호남학회 회칙 제13조에 의하면 회비는 회원의 입회금, 월연금,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본회규칙, 1: 56) 이에 따라 재정은 대부분 회원들의 월연금과 기부금으로 마련되었다. 호남학회는 설립 당시에 회원들이 각자 사정에 따라 기부금을 낼 것을 약속했지만⁸⁾, 초기 열의와 달리 약정한 금액을 제대로 납부한 인사는 거의 없었다.⁹⁾ 여기에 회원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난 타개책은 시급한 문제로서

8)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7일 광고에는 호남학회 회원들이 약속한 捐助金액수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백인기 400圓, 박영철·고정주 각 300圓, 강엽·강운섭·최우락·박해창·김경중·이석현·오재승·박우현 각 100圓, 김기환·이기영·이우설·이근용·오정설·정현구·유시동·정기용·이돈의 각 10圓, 정규삼·김낙구·이봉·윤주혁·박준필·장두식·임양은·임문규 각 5圓, 박봉래가 3圓, 민병직 2圓, 김병 1圓 그리고 방청객 이갑 10圓 50錢, 방청객 김성식 20錢 등 합계 2,008圓 74錢에 달했다.

9) 박영철 170圓, 이재량 100圓, 조강환 80圓, 최우락 55圓, 강운섭 50圓, 변기찬·강엽·이석현이 각 30圓, 윤

부각되었는데, 학회의 재정 현황은 『호남학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호남학보』에 기록된 수입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3〉 The Status of Import Expenditures of Honam Society

Yearly date	Import status	Expenditure status	Balance present condition
July, 1907	51圓 19錢	43圓 51錢	7圓 68錢
February, 1908	57圓 68錢	31圓 14錢	26圓 54錢
March., 1908	244圓 53錢 5里	85圓 58錢 5里	158圓 95錢
April, 1908	302圓 45錢	198圓 78錢 5里	103圓 66錢 5里
May, 1908	358圓 66錢 5里	134圓 18錢	224圓 48錢 5里
June, 1908	289圓 48錢 5里	126圓 85錢 5里	162圓 63錢 5里
July, 1908	748圓 63錢 5里	535圓 54錢 5里	213圓 9錢
August 20–28, 1908	76圓 50錢	76圓 16錢	34錢
August 29–October 3, 1908	430圓 15錢	434圓 60錢 5里	-4圓 45錢 5里
October 3–11, 1908	38圓 6錢	30圓 35錢	7圓 71錢
October 12–November 8, 1908	233圓 98錢	330圓 19錢	-96圓 21錢
November, 1908	508圓 42錢	471圓 77錢	36圓 65錢

이러한 회계보고를 종합해보면 학회는 재정 면에서 좀처럼 여유가 없었고, 겨우 이어가는 실정임을 볼 수가 있다. 특히 후반부의 회계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호남학회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대한매일신보』가 재지 세력의 지원 미흡, 재정의 궁핍 등으로 인하여 학회가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음을 거듭 보도하고 있음도 이를 뒷받침한다.¹⁰⁾ 재정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탓인지 학회는 기부금 모집을 위한 수금활동도 열심히 나선 것 같다. 실제로 1908년 5월 10일에

상오 20圓, 박해창 15圓, 최준식·김종현 각 10圓 씩 기부금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황성신문』은 1908년 4월 22일자 사실 ‘勸告湖南學會長’을 통하여 高敬命의 後孫으로 湖南의 名家이며 奎章閣 直閣까지 지낸 高鼎柱가 湖南學會 會長으로서 한 學會 捐助金 三百圓을 내놓기로 한 約束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非難하기도 하였다.

10)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19일 ‘호남학회 연설’·1909년 3월 29일 ‘何不趁價’·5월 9일 ‘收金零星’ 기사 참조.

열린 제13회 회의록에서는 백인기가 재정의 궁핍함을 탄식하면서 수금위원을 자원하였으며, 변진걸도 수금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제13회 회록, 5: 46)¹¹⁾

이와 관련 1908년 12월 19일자 『대한매일신보』는 호남학회에서 경비를 수합하기 위해 전라남북도에 수금위원을 파견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만 모집금이 3 천圓에 이르렀다고 보도하였다. 1909년 3월 19일자와 5월 9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전남북에 파견되었던 호남학회 시찰위원들이 군산 등지에서 찬성회를 열고 전남북의 유지들로부터 기부금을 접수하였는데, 기부액이 7만 여 圓에 달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¹²⁾ 그러나 『호남학회』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아 사실 여부가 의심스럽다. 학회의 재정궁핍을 본다면 호남의 유지들이 약속한 금액을 제대로 기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내었더라도 이주 적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재정적인 압박은 학회 활동의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당시 회관 건립과 학보 발간 문제는 계몽학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였다. 따라서 학회 설립 이후 어느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부각되었다. 호남학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호남학회는 1907년 7월 17일에 3차 회의를 열고 학회 운영에 관한 시무를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총무 강염은 학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보를 발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므로 빨리 발간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재무부장 백인기는 학보보다는 회관의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였다. 그러자 회계원 조강환이 회관을 마련한 이후에 학보 발간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여 그의 의견이 채택되었다.(제3회 회록, 2: 49)¹³⁾

그런데 회관 건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하자 다시금 학보 발간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공론이 제기되었다. 1908년 2월 9일에 열린 6차 회의를 보면 임시의장 정웅설의 동의로 학보의 발간부터 하자는 제의가 다시 가결된 것을 볼 수 있다.(제6회 회록, 3: 57)¹⁴⁾ 재정

11) “白寅基氏가 財政의 窘急함을 感歎하여 收金委員會를 自願하고 劉禧烈氏 特請으로 邊鎮傑氏로 收金委員會를 定하고 異議가 無하다.”

12)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9일 ‘群港喜信’·5월 9일 ‘收金零星’ 기사 참조.

13) “總務 姜曄氏가 勸議되 學會를 成立하면 會報를 成立함이 第一問題다. 去會捐金을 從速收合하여 會報를 發刊하면 崔禹洛氏가 再請하니 會長이 會中 意見を 問하니 白寅基氏가 改議하기를 我會가 今當初創하여 百般經用이 無非窘絀이어늘 若干 捐金으로 會報를 發行하면 追後 財政을 難以繼續하니 會館을 先定고 財力稍紓함을 待하여 追後 議定하자 하니 曹康煥氏 再請으로 可決하다.”

14) “鄭應尙氏가 勸議되 本會會報 發刊이 第一 急務니 此 件을 評議會에 委任하니 鄭達永氏 再請으로 可決되다.”

운영을 두고 벌어진 이 같은 갈등과 혼란상 등은 학회의 재정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당초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어진 회관 건립과 학보 발간은 이를 반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회는 학회 운영비를 위해 수금위원 파견 이외에도 법학강습소 개설, 측량학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학보 9호가 1909년 2월 25일에 발간되지 못하고 3월 23일에야 발간된 사실에서도 재정공핍의 경우를 볼 수가 있다.¹⁵⁾ 결국 재정적인 압박은 학보 종간을 더욱 가중시켰다. 『호남학보』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9호로 종간되었다.

3. 『대한매일신보』 사설 문제

1908년 8월 2일 특별 총회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1908년 7월 19일자 사설 「告湖南學會」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이 사설은 『대한매일신보』에서 호남학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설 가운데 일부가 호남학회 회원들의 감정을 자극해 문제가 된 것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古來로 湖南人이 全國同胞의 排斥하는 바 되야 日彼는 熱心도 無하며 慷慨도 無하며 義俠心도 無하며 未來思想도 無하고 只是詐爲의人物의 產出地라고 惡評을 加하던 바 近日에 至하야 風潮에 感奮하야 湖南學會가 起하매 (중략) 馬韓이 當初湖南을 근거하야 三韓의 霸主를 作하얏스나 箕準이 敗國殘王으로 區區數千兵을 擁하고 浮海壹入하매 拱手俯伏하얏스며 後來百濟가 此地를 用하야 武力은 羅麗와 并峙하며 文化는 日本에 遠瞻하얏스나 其全邦實力이 畢竟嶺南民族에 不及하는고로 終局勝利는 新羅에 讓하얏고 (중략) 勝朝 四百七十年間에 湖南全境이 最不平한 待遇를 受하얏스니 此는 湖南民族의 政治歷史에 劣敗를 遭한 바이어니와 其他文學實業美術等の 發達도 諸道民族의 居後하얏도다.(하략)¹⁶⁾

이날 회의에서는 사설의 내용이 호남과 호남인을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대한매일

15) “本學報발행이 이제 9호에 이르렀는데 代金수합이 零星하여 계속발간이 지극히 어려우니 구독하는 회원들은 대금을 속히 보내주시 바랍니다”는 9호 책머리 광고를 통하여도 호남학회의 재정사정을 엿볼 수 있다.

16) 『대한매일신보』, 1908.7.19, 1면.

신보』 측에 총대(摠代)를 보내 추궁하기로 하고 총대위원으로 오기호·최동식을 선출하였다. 호남학회 측에서 작성한 질문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第860號〈告湖南學會〉에 曰古來湖南人이 爲全國所排斥하야 曰彼無熱心하며 亦無慷慨하며 亦無義俠心하며 亦無未來思想이오 而只是詐爲人物產出地云云者하야는 則愚未知此 果有典故與證佐歟아 如麗太祖所稱錦江以外人其性奸僞之說은 足下亦已知其忿惡蘆하야 移怒一道하니 則不當以一時妄發로 爲千古斷案也라 不有典故證佐오 而劈頭一起하야 疊加侮辱하니 此乃上人門戶하야 罵人父祖之口氣라 恐不可以激勸相恕也로다. (중략) 盖真氏之時에 馬韓이 直不過部落酋長爾라. 王準南來에 勞非所敵이니 則當時民族之味劣이 豈獨湖南而已리오. 漢水이하는 莫不皆然也라. (중략) 足下가 非湖南人으로 有仇怨者矣라 其所激勸이 實爲侮辱이니(하략)¹⁷⁾

호남학회 측에서는 『대한매일신보』 측이 호남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를 아무런 전거 없이 그대로 옮겼으며, 고려 태조의 금강이하 사람에게 대한 편견도 모두 망발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를 천고단안(千古斷案)이라고 여긴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하였다. 또 마한이 기준(箕準)에게 굴복한 것을 호남인이 매열(味劣)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지만, 당시 한강 이남은 모두 같은 상태였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매일신보』 측은 답함(答函)을 통해 이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其曰熱心도 無하며 慷慨도 無라 云云한 句語는 何等典故證佐를 據하야 호남인을 駁論함이 아니라 只是湖南의 前進를 祝賀하기 爲하야 流俗의 妄言을 辨斥함인 故로 其下에 罵者一去하고 賀者一來라 云하엿스며, 王準의 南來를 論함에는 即彼漢水以下の 民族劣味를 并論함이 可하나 但本論範圍가 三韓民族에 遍告함이 아니오 只是湖南에 限함인 故로 湖南의 味劣만 論함이며(하략)¹⁸⁾

호남인의 성질을 논한 것은 호남학회의 발전을 축하하기 위해 세상의 망언을 인용한 것일

17) 『대한매일신보』, 1908.8.11, 1면.

18) 『대한매일신보』, 1908.8.16, 1면.

뿐이며, 호남의 매열(昧劣)을 논한 것은 논지의 범위가 호남에 한정되어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호남학회의 양해를 구하였던 것이다. 호남학회는 8월 9일의 정기회의에서 『대한매일신보』에서 보내온 답함(答函)을 놓고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해 논의를 벌였다. 대한매일신보사에 파견되었던 오기호와 최동식은 『대한매일신보』 측이 일간 신문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해 놓고, 달랑 편지 한 장만 보내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정응설이 이미 사과를 받았으니 같은 동포로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학회의 덕의(德義)상 없던 일로 덮어두자고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제19회 회록, 5: 50-51)

그런데 그 후 호남학회 측에서는 『대한매일신보』 측이 학회에 사죄장을 보내왔다면서 의기양양하게 『대한매일신보』 측을 엄하게 나무라는 글을 일진회의 기관지였던 『국민신보』에 실었다.(박찬승, 1994, 137) 이에 『대한매일신보』는 8월 11일자 신문의 사설 「論湖南學會之頑迷」라는 글을 통하여 호남학회 측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글은 앞의 답함(答函)에서 펼친 답변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호남학회 회원들을 ‘미완(迷頑)’하고 ‘준우(蠢愚)’하고 ‘용망(庸妄)’하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嗚呼라. 湖南一地方全體民族을 대표한 學會로서 其思想의 陋劣함이 었지 此에 至하노. 此等劣想이 不去하고는 漢江이 南折하고 智異山이 平地될지라도 彼會의 覺醒은 無期며 白日이 西昇하고 北水洋에 花開할지라도 彼會의 期進은 無望이로다”¹⁹⁾라고 하여 호남학회 회원들의 생각이 협소함을 격렬히 비난하였다. 『대한매일신보』가 실은 이 신문 사설은 호남학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결과적으로 호남학회와 『대한매일신보』 간의 사설 논쟁은 당시 호남학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4. 교육 담론 전개 양상

1906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론장의 주체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당시 지역사회의 학술계몽과 구국운동을 강조하며 근대 지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⁰⁾ 이 점에서 학회지 발간은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였다. 근대전환기 학회지를 생산하는 이들이 가장 중시한 것은 교육이었다. 『호남학보』 역시 예

19) 『대한매일신보』, 1908.8.19, 1면.

20) 가령 이기의 경우에는, 1906년부터 『대한자강회월보』의 논설 필진으로서 자강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호남학보』의 필진으로 활동하면서는 학보 담론을 주도하며 신학문 소개에 힘을 기울였다.

외가 아니었다. 호남학회 회원들은 호남의 교육 발달과 지식 증진을 위해서는 신학문의 수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교육의 실시와 식산진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학회지의 편집 방향도 신교육이나 신지식을 소개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졌다.²¹⁾ 이를 위해 『호남학보』가 취한 전략은 호남 지역의 보수성과 무지함에 대한 비판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호남사정에 대해 학회 취지문은 국권 상실의 위기 앞에서 호남지역의 인사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더 암매(暗昧)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한 이유로서는 호남지역이 구학(舊學)을 고집하고 신학(新學)을 거부하는 현상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호남지역은 신학문의 수용과 신교육의 실시가 가장 부진하고, 호남 인사들의 학회설립도 다른 지방보다 뒤늦게 되었다고 보았다.(본회취지, 1: 52-53)²²⁾ 이와 같이 당시 호남지역의 보수성과 새로운 교육에 무관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학회설립의 시급성을 제기하는 견해는 학회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²³⁾

이와 관련 변기찬은 「본회의무」에서 아래와 같이 학회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其所有하는 權利를 保守하는 方法은 學問을 必須하고 學問은 教育이 아니면 不得할 지니 甲國은 甲國의 教育이며, 乙國은 乙國의 教育을 各者競爭하여 日新一日에 進進不已하는 現今時代에 處한 我韓도 此를 大悟하여 上自政府로 下至間巷히 莫不熱心하여 校黌이 相望하고 各會가 相起하여 畿湖人士는 畿湖의 教育을 擔任하고, 西

21) 『호남학보』의 중심 내용은 크게 ‘교육변론(教育辨論)·각학요령(各學要領)·수사규풍(隨事規諷)·명언언행부(名人言行)·본회기사(本會記事)·회원명씨(會員名氏)’ 등 6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

체제	내용
교육변론	학회령·사립학교령, 국한문 경중론, 양계조 학설 소개, 의무교육, 구습 타파, 정신 교육, 학계 소식
각학요령	가정학·국가학·정치학·법학·농학·종식학(種植學)·삼림법·동양척식주식회사법
수사규풍	대한매일신보의 논설 조등(照騰), 본회의 의무, 의무 교육, 자금 사회는 경쟁 사회라는 것, 여학교의 필요성, 측량 응모, 식산교육, 학부령, 사립학교 설립 인가 청원서식, 학부 차관 연설 필기
명언언행	을지문덕·양만춘·김유신·강감찬·서희·성충·김후직·강수·설총·김생·김양·장보고·정년·조충·김취려·최춘명·김경손·김윤후·원종갑·안우·이방실·최영·신준겸·곽려·정승우·이존오·정습명·황수·이색·길재·맹사성·황희·허조
본회기사	회의록·세척·연조록(捐助錄)·회계 보고
회원명씨	신입 회원과 지회 임원록

22) “顧今湖南五十七郡之人其 儒者는 大袍高笠으로 坐談性理호야 慮其不我崇拜者多矣오 其 塾師는 通鑑史略으로 邀取月糧호야 慮其奪我生計者多矣오 其 富戶는 攄吝錢財호고 昧於公益호야 慮其素我義捐者多矣라. 如或群起而攻之日 學會는 是何物也오. 此皆近世新學이라 其道則無父無君이오 其書則無倫無理호야 驅人類於禽獸者也라 호야 一唱百和호야 却立而反走호야 < 52 > 竟使國家로 沈淪호고 生民으로 野昧則亦復何快於心哉아.”

23) 이에 관한 글로는, 박해창의 「본보축사」(1)과 김관표의 「본보축사」(8) 등이 있다.

北人士는 西北教育을 擔任하고, 嶠南關東人士는 嶠南關東의 教育을 擔任하여 各其 區域을 各自擔任하매 我湖南學會도 亦其固有한 義務를 擔任할지라(본회의무, 2: 35)

위 글은 호남학회 회원들의 생각을 잘 웅변해준다. 즉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고, 학문은 교육이 아니면 얻을 수 없으니 학회를 만들어 각 지방의 교육을 각각 맡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위와 같은 상황 인식 위에서 신학문의 수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는 구학문과 낡은 관습에 대한 비판과 병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는 구학문과 관습을 배척해야 할 폐단으로 사대주의 폐, 한문습관의 폐, 문호구별의 폐를 들었다. 먼저 사대주의 폐단에 대하여 그는 북벌론이 ‘大明’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민심회복·국권회복)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후생(後生)이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위하여 대명의리설(大明義理說)을 고안한 데서 폐단이 시작되었다고 비판하며 독립 의식을 주장하였다. 이어 한문습관의 폐단에 대해서는 일단 배우기 어렵고 불편하며 입신은 도움이 될지 모르나 공익을 얻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국문을 함께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호구별의 폐단에 대해서는 양반을 나누고 문무적서(文武嫡庶)를 나누고 노소남북(老少南北)으로 나뉘서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며 평등 의식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일부벽과, 1: 11-18)

이기의 글은 표면적으로 구학문의 폐단을 비판한 글처럼 보이지만 기실은 현실에 안주하는 당대 지식층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문이란 의미를 배우는 것이지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나 구학문에서 중시되는 내용들은 국문으로도 배울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학비학문, 7: 3) 변승기 역시 「신구동의」에서 신구(新舊)학문은 그 의리(義理)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신학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신구동의, 2: 15) 이 같은 배경 위에서 호남학회 회원들은 신학(新學)을 시무(時務)에 도움이 되는 사농공상 공통의 학문이라 파악하고,(호남학회월보 발행서, 1: 2)²⁴⁾ 『호남학보』에 각 학문의 요체를 소개하는 「가정학설」, 「국가학설」, 「정치학설」,

24) “惟士有學이오 而農工商은 不有學焉故로 民日益愚호고 俗日益昧어든 而況我韓之爲漢文巧餘者乎아. 幸自近日新學之出로 各種 教科가 無不畢具호야 如政治學 法律學은 是士之學也오 農桑學 種植學은 是農之學也오 商務學 經濟學은 是商之學也오 光學 聲學 重學 化學 機器學은 是工之學也오 家政學 國家學 兵學은 是又士農工商通共之學也라.”

「법학설」, 「농학설」 등의 글을 연재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설과 학술의 저자와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The author and table of contents of the essay and the academic

Title	Author	Number	Title	Author	Number
一斧劈破	李沂	No. 1-3	鄉校得失	李沂	No. 4
立教本旨	邊基纘	No. 1	師校緩急		No. 4
晨鍾普警	崔東埴	No. 1	今乃省悟	梁會源	No. 4
梁氏學說	李沂	No. 1	青年同胞	尹柱赫	No. 4
家政學說	李沂	No. 1	法學說	李沂	No. 4
家政法(續)		No. 2	法學(續)		No. 6-9
家政學(續)		No. 3-9	大學新民解	李沂	No. 6
國家學說	李沂	No. 1-4	楊墨辨		No. 6
國家學(續)	玄采 譯述	No. 5-9	農學說	李沂	No. 6
新舊同義	邊昇基	No. 2	農學(續)		No. 7-9
晨鍾普警(續)	崔東埴	No. 2	宜讀論語	崔禹洛	No. 7-9
政治學說	李沂	No. 2	義務教育	姜曄	No. 7
政治學(續)		No. 3-4	學非學文	李沂	No. 7
政治學(續)	梁啓超 著	No. 5-9	精神教育	尹柱臣	No. 7
學界謾說	劉禧烈	No. 3-4, 6-9	種植學說	尹柱瓚	No. 7-9
晨鍾普警 續	崔東埴	No. 1-4, 6-9	教育宗旨	李沂	No. 8
革去舊習	邊昇基	No. 3-4, 6	各種學 不如農學	尹柱瓚	No. 9

위 표에서 보듯이, 『호남학보』가 신지식으로 소개하는 학문 가운데는 국가학, 정치학, 법학과 같이 통치와 관련된 분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정학, 농학, 교육학, 생물학, 수학, 지리학, 물리학, 삼림법과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실용적인 분야가 더 많았다. 근대학문이라 할 수 있는 가정학은 1호부터, 중국의 개화사상가인 양계초의 사상을 알리는 정치학은 2호부터 꾸준히 실려 있고, 교육계몽과 식산증진을 위한 국가학설(3호~9호), 법학설(4호~9호), 농학설(7호~9호), 종식학설(7호~9호) 등이 나누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25) 게재된 주제는 시대 변화와 현실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호남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내용이 많고 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설과 신학문과 세계의 사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호남학보』 필진들은 신교육의 방식에 대한 의론을 많이 제시하였다. 가령, 이기는 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종지(宗旨)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교육종지, 8: 1-2) 윤주신은 먼저 정신이 바로 서야 올바른 교육이 된다고 강조하였으며(정신교육, 7: 10-11) 강엽은 서양 의무교육의 도입을 제시하였다.(의무교육, 7: 2-3) 더불어 유희열은 학생을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이 급선무임을 강조하였고(학계오설, 8: 3-4), 최준식은 여학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여교필요, 5: 34-35) 이와 같은 주장은 변기찬의 「입교본지」, 이기의 「사교위급」 등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성교육과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근대전환기의 학회지들이 앞 다투어 주장한 의론이기도 했다. 『호남학보』에서도 여성을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학이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실린 것을 보면, 『호남학보』의 내용 중에 이 담론이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가르치는 내용도 상세하여 태아교육부터 육아법, 유아교육방법, 유아의 의식주, 질병, 놀이, 소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호남학보』가 가정학 소개에 중심을 둔 것은 근대전환기 여성교육에 상당한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분명 중세의 교육관과 다른 지점이라 할 수 있다.²⁶⁾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입각한 의무교육의 도입 역시 이러한 교육의 기본 개념이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기, 윤주찬 등은 지역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농공상(農工商)에 국가의 부강이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기를 적극 권장하기도 하였다. 윤주찬의 「각종학이 불여농학」이나 최동식의 「신종보경」, 이기의 「농학설」 등은 이러한 식산진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라 할 수 있다.²⁷⁾ 이처럼 이기를 비롯한 잡지의 생산자들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신학문수용과 신교육실시의 당위성을 공론화시켜 나갔고, 식산흥업의 필요성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당시의 대중들 또한 『호남학보』를 읽으면서 신지식을 수용하고 정세를 예측하며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호남학보』는 근대전환기 한국 사회에서 분출한 지적 수요에 부응하며 지식과 담

26) 다만, 여성의 역할을 출산과 육아와 교육하는 주제로 한정된 점은 중세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27)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미래직업을 조사하였을 때 학생들은 실업가가 되기보다는 정치학, 경제학, 법학을 배워 관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호남 내에 식산흥업운동의 부진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론이 생산되고 유포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자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호남학회에서 주요 의사소통 행위자로 활약한 이들의 공론 표출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호남학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식인 공동체의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III. 지식인 공동체의 성격과 유학적 관계망

1. 공동체의 집단적 성격

『호남학보』에 기록된 호남학회 회원 명단을 참조하면, 당시 중앙 회원은 376명이었으며, 전북지회 회원은 24명으로 파악된다.²⁸⁾ 호남학회 제26차 회의록을 보면 전남지회 설립 청원서가 보고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후 전남지회 임원이나 직제에 대한 기록은 파악할 수 없어 실제로 설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호남학회의 회원 명단을 출신 지역별로 세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⁹⁾

〈Table 5〉 Membership by Jeonbuk area

Area	Iksan	Nam won	Yeo san	Jeon ju	Buan	Muju	Geums an	Gobu	Impee	Heung deok
Member	40	16	14	13	12	11	10	8	8	8
Area	Gimje	Lim shil	Yong dam	Man gyeong	Mu jang	Go chang	Ko san	Taeln	Jinan	Okgu
Member	7	7	6	6	6	6	6	6	6	5
Area	Jin shan	Jang su	Un bong	Jeonge up	Kun san	Yong an	Ham yeol	Geum gu	Sun chang	
Member	5	4	3	3	2	2	1	1	1	223

28) 전북지회 임원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會長	副會長	總務	評議員	教育部長	經理部長	書記員	會計員	幹事員
李建鎬	金秉旭	姜台馨	李庠珪, 李重翼, 朴基順, 金禹鉉, 金東斗, 張鶴允, 金昌燮, 柳在豐, 李康元, 張濟喆, 金熙根, 李元相, 宋秀昶	鄭碩謨	金永哲	崔貞柱	朴準翰 朴榮來 文昌錫 白樂倫	李秉日

29) 「회원명부」, (1: 59, 2: 57, 3: 62, 4: 57, 5: 58, 6: 60, 7: 60, 8: 60, 9: 61) 참조. 한편 이현종(1972)은 앞의 논문에서 전북지역 29개소 181명, 23개소 103명이라고 기록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조사라 할 것이다.

〈Table 6〉 Membership by Jeonnam area

Area	Hae nam	Jang seong	Gu rye	Yeong gwang	Bo seong	Sun cheon	Gang jin	Nam pyeong	Mu an	Yeong am
Member	26	15	12	12	10	8	8	7	5	5
Area	Ham Pyung	Neung Joo	Jeju	Nak an	Chang pyeong	Yeo su	Dam yang	Jang heung	Jin do	Ok gwa
Member	5	5	4	4	3	3	3	3	3	2
Area	Hwa sun	Heung yang	Naju	Dong bok	Gwang ju	Dol san	Mok po			
Member	2	2	2	1	1	1	1			153

위 표를 보면, 전북지방은 29개 지역 223명인데 비하여 전남지방은 27개 지역 153명으로 전북 지방의 회원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각 지방별로는 익산과 해남이 각각 40명, 2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회원 수가 많았던 데는, 3대와 5대 부회장을 지낸 최우락(崔禹洛)이 익산출신이고 3대 회장을 지낸 이재량(李載亮)이 해남출신이었다는 것이 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타 지역 회원으로는 경성 1명(許枕), 남해 1명(張命相)이 있다.

한편 중앙 회원들의 가입 현황을 호수별로 분석해보면, 1호(전북 33명, 전남 17명), 2호(전북 34명, 전남 9명), 3호(전북 34명, 전남 24명), 4호(전북 27명, 전남 14명), 5호(전북 16명, 전남 15명), 6호(전북 30명, 전남 49명), 7호(전북 21명, 전남 9명), 8호(전북 13명, 전남 6명), 9호(전북 10명, 전남 7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호수별 전체 가입 분포를 보면, 6호가 79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호 58명)1호 50명)2호 43명)4호 41명)5호 31명)7호 30명)8호 19명)9호 17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6호와 3호를 제외하면 대체로 1호를 기점으로 회원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회의 활동이 부진했다는 점 외에도 호남 지식인들의 외면이 회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 호남학회 초창기부터 주도적인 활동을 펼쳤던 임원진과 학보 필진들의 출신지역 분포는 어떠했을까.

〈Table 7〉 The Honam Society, the Honam Academy Officers and the List of Pilgrims

Area	Name(native area)
Jeonbuk	李沂(萬頃), 李石岷(益山), 崔禹洛(益山), 林圭(益山), 劉禧烈(錦山), 李保(礪山), 朴海昌(南原), 崔俊植(益山), 邊基繼(沃溝), 姜曄(錦山), 尹光普(益山), 鄭應肅(礪山), 劉興烈(礪山), 金璟中(古阜), 朴榮喆(全州), 白寅基(任實), 吳知泳(益山), 李綺榮(興德), 李建鎬(全州), 沈宜甲(益山), 尹敬重(錦山), 李倬(錦山), 具本淳(茂朱), 鄭海千(興德), 閔泳直(茂長), 鄭奎三(高敞), 李愚若(高山), 朴準弼(鎭安), 李根容(珍山), 李敬魯(珍山), 尹相五(群山)
Jeonnam	李載亮(海南), 高鼎柱(昌平), 崔東墮(順天), 尹柱瓚(康津), 邊昇基(長城), 沈璿澤(長城), 張斗植(靈光), 曹康煥(靈光), 尹柱臣(康津), 林正奎(長城), 梁會源(綾州), 梁漢默(綾州), 尹柱赫(海南), 姜雲燮(康津), 沈璿澤(長城), 金鳳善(求禮), 白樂鼎(靈光), 吳基鎬(康津), 金銜錫(康津), 韓南洙(靈巖), 邊鎮傑(長城), 金炳胤(濟州), 朴鍾完(海南), 朴南鉉(寶城), 金永默(順天), 羅寅永(樂安), 禹成海(昌平), 金漢永(麗水), 李光秀(潭陽), 呂圭栢(潭陽), 吳鎮龍(務安), 鄭達永(南平)

위 표에서 보듯이, 호남학회 임원진과 학보 필진들의 출신지 또한 전북지역과 전남지역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익산(7명), 금산(4명), 여산(3명), 전남지역은 강진(5명), 장성(5명), 영광(4명), 해남(3명) 출신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호남학보』 필진의 출신지 역시도 전북지역과 전남지역에 고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별 분포도에 있어서도 익산, 여산, 장성, 해남, 강진 출신이 많음이 주목된다. 이로 볼 때, 호남학회와 『호남학보』는 이들 지역 출신들이 주류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보 발행과 학회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구성원들은 전·현직 관료, 유학자, 자강단체의 회원, 을사오적 암살에 참여했던 자신회(自新會) 회원, 신식학교 학생 등 당대의 지식인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었다. 실제로 호남학회 전체 회원 398명 가운데 한말 관료가 31명(7.8%), 1910년대 총독부 관료가 39명(10%), 유학자가 51명(12.8%)을 차지하고 있다. 학회 임원진과 학보 필진들도 이들이 주를 이뤘음을 상기해 볼 때 호남학회와 『호남학보』가 당대 호남 지식인들의 활동 근거가 되는 주요 지점이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박찬승(1994: 153)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관료시기와 학적 배경에 따라 다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1894년 이전에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나아간 이들, 두 번째 1894년 이후 관직에 추천되어 나아간 이들, 세 번째 1894년 이후 신문학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관직에 나아간 이들이 그것이다.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이들은 고정주, 유홍열, 유희열, 최우락, 이건호, 나인영, 박종완 등이며,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이들은 이재량, 이기, 유주찬, 오기호, 박해창, 양회원 등이며,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이들은 윤광보, 김인식, 박영철, 임정규, 백인기 등이다.

이들 가운데 호남학회의 주도 세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일부만 근대교육을 수학하였고, 대부분은 서당·사숙·의숙 등 전통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들 대다수는 한학 혹은 구학문을 공부한 유학자였지만 그럼에도 시세변화와 더불어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학회 활동과 학보 발간은 이들의 교육운동과 계몽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요인이자 기반이었다.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고정주, 이재량 등도 낙향하여 신교육 사업과 활동을 이어갔으니, 당시 호남학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호남학회 회원 가운데에는 당시 대한자강회나 대한협회에 회원으로 참여한 이들도 14명 이(3.6%) 확인된다. 대한자강회 회원으로는 초기 호남학회 활동을 주도했던 이기와 강업을 비롯하여 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윤경중, 을사오적 암살사건을 일으킨 나인영(본명 나철)과 유주찬, 후일 3·1 운동에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천도교의 양한묵, 호남학회 제3대 회장을 역임한 이재량도 대한자강회 회원이었음이 확인된다. 아마도 이들은 당시 대한자강회 활동을 통하여 호남지역의 교육과 산업 증진을 도모할 계몽학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한자강회의 후신으로 만들어진 대한협회 회원으로는 윤상오, 유희열, 정석창, 강엽, 윤경중, 이시우, 이연희, 최우락, 양홍묵, 유주찬 등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강엽, 유희열, 최우락, 유주찬 등은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 회원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다. 전북 지회의 상당수 회원들이 대한협회 회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³⁰⁾

한편 호남학회 일반 회원의 다수는 당시 한성에 거주하면서 신학문을 배우고 있던 유학생으로 파악된다. 그들의 정치사회적 성향은 191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³¹⁾

30) 대한협회전주지회 : 김병욱(金秉旭), 이중익(李重翼), 장학윤(張鶴允), 류재풍(柳在豐), 장제철(張濟喆), 김희근(金熙根), 박영래(朴榮來), 정석모(鄭錫謨), 김여철(金永哲), 이병일(李秉日) / 군산지회 : 조병승(趙秉承, 옥구), 변기찬(邊基纖) / 무안지회 : 조옥승(曹玉承, 목포) / 정읍지회 : 이요영(李堯榮) / 홍덕지회 : 김연수(金連洙)

31) 박찬승(1994: 155)에 따르면, 39명이 일제 초기관직을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39명의 관직경력자 가운데 훈도 8명, 향교직원 2명, 의원조수 1명, 이왕직 사무관 1명 등 비친일적 경력자를 제외한 27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군수가 7명, 주사·군서기가 11명, 임시토지조사국의 기수·서기가 11명, 재판소 서기가 1명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조선총독부의 중·하위직 관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민족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³²⁾ 1910년대 관리가 된 이들의 반일 의식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는 다수가 군서기, 측량기수, 훈도 등을 역임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호남학회 핵심 구성원이었다가 친일의 길을 걸어간 박영철과 정응설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호남학회의 지식인 공동체는 국권상실기라는 시대적 맥락과 호남이라는 특수성이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인사들이 모인 집결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인지 호남학회는 창립 이후 임원진의 잦은 교체, 재지세력의 지원 미흡, 재정의 궁핍 등으로 인하여 그리 활발한 활동을 펴지 못하였다. 실제로 호남학회의 지식인 공동체들은 학회의 운영과 활동방향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과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고, 호남학회가 해산 뒤에는 각자 분화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호남학회 내에 모인 지식인들이 집합적 의미의 지성이 되지 못하고 개인적 차원에 머물렀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그 기저에는 개인적 차원의 기득권이나 계급적 이익을 고수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 보아 호남학회의 지식인 공동체는 사실상 호남이라는 지역을 근거지로 두고 생겨난 이익 집단 또는 정치 단체로서의 성격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호남학회가 근대전환기라고 하는 시대적 모순과 계급 모순의 결사체였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2. 유학적 관계망

19세기 이후 근대전환기 호남 유학의 전반적인 특징 중 하나는 노사학과(盧沙學派), 간재학과(艮齋學派), 화서학과(華西學派), 연제학과(淵齋學派) 등 비종 있는 학파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학파는 율곡 성리설 계승을 둘러싸고 학파 간 학설 논쟁을 진행하면서도 국권상실기에는 계몽운동 등을 통해 국가적 위난을 극복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박학래, 2015: 244-246) 호남학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호남학회 회원 가운데 근현대 유학자는 51명(12.8%)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호남 학회를 중심으로 한 유학자 집단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2) 1910년 이후 민족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살펴보면 3·1 운동에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천도교의 양한묵(梁漢默), 임시정부관계자로서 민치환(閔致煥)·이석현(李石峴)·조봉호(趙鳳鎬), 의열투쟁 관계자로서 이병호(李秉昊)·윤상보(尹相普), 신간회 관계자로서 김창용(金昌容)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유학자 집단은 유교에 바탕을 둔 도덕적 의리관을 유지하면서도 신학문 수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은 여러 계몽적 논설을 『호남학보』에 게재하여 국권회복과 교육발달에 일조하고자 하는 계몽활동을 수행했다. 이 점에서 호남학회에 참여했던 유학자들은 일부 신구학문 절충사상을 가졌던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신학문 수용자였다고 할 수 있다.³³⁾ 특별히 호남학회에 한말 유학자 집단의 참여가 높은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특정학파의 종장 사후에 특별히 행적을 지도할 만한 스승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점에서 이 지식인 공동체는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점에 위치한 유학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시기 유림 계층의 변화를 규명할 수 있다는 단서가 되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호남학회 유학자 집단의 유학적 관계망, 즉 학맥과 사승 관계는 어떠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에서 구축한 호남지역 근현대유학자 인명정보를 참조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향교 관련 인명록(『光州鄕校隨行案』, 『南原鄕校衛聖契案』, 『務安靑衿案』) 간재학과 문인록(『華鳴淵源錄』), 노사학과 문인록(『盧沙先生淵源錄』, 『沙上門人錄』), 노사직전제자문인록(『老柏軒門人錄』(정재규), 『日新齋信從錄』(정의림)), 화서학과 문인록(『藥溪淵源錄』, 『華西學派忠義孝烈錄』) 등 10개의 인명록을 합한 27,459건의 인명정보가 담겨 있다.³⁴⁾ 아래의 표는 근현대유학자 목록과 호남학회 회원의 관계를 인물별로 대조해본 결과이다.

〈Table 8〉 The List of Confucian scholars and the Relationship of the Four Sects

No	name	Birth year	native area	academic position	master name	source
		Death year				
1	劉禧烈		錦山	副會長	李恒老, 崔益鉉	藥溪淵源錄
2	朴海昌	1876	南原	編輯部長	李恒老, 崔益鉉	藥溪淵源錄
		1933			田愚	華鳴淵源錄
3	張斗植		靈光	評議長	李恒老, 柳麟錫	藥溪淵源錄

3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회지 대부분의 문체가 국한문 혼용체로 나타난 것은 한학을 바탕으로 수학한 유학자 지식인들의 학적 배경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이들의 유교적 에토스가 이 집단적 관계망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리라고 인식하게 만든다.

34) 귀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근현대유학단과 설주희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No	name	Birth year	native area	academic position	master name	source
		Death year				
4	崔俊植	1860	益山	評議長	李秉殷	華嶠淵源錄
5	崔東植		順天	評議員	李僖錫	盧沙先生淵源錄
6	梁會源	1878	綾州	教育部長	鄭義林	盧沙先生淵源錄
7	鄭奎三	1883	高敞	評議員	李恒老, 金平默	槩溪淵源錄
8	金正基		光州	發起人	奇宇萬	盧沙先生淵源錄
9	鄭海斗	1896	寶城	發起人	田愚	華嶠淵源錄
10	李時雨		龍安	書記員	李秉殷	華嶠淵源錄
11	朴鍾完		海南	評議員	李恒老, 柳麟錫	槩溪淵源錄
12	李建鎬		全州	全北支會長	李恒老, 柳重敦	槩溪淵源錄
13	閔泳直		務長	評議員	李恒老, 柳重敦	槩溪淵源錄
14	尹相五		群山	評議員	李恒老, 崔益鉉, 尹恒植	槩溪淵源錄
15	尹采夏	1895	海南	幹事員	奇宇萬, 金權玟	盧沙先生淵源錄
16	金衡錫		康津	評議員		務安青衿案
17	李光秀	1873	潭陽	評議員	奇宇萬	盧沙先生淵源錄
					奇松沙宇萬門人	沙上門人錄
18	邊昇基	1866	長城	學報 筆陣	金祿休	盧沙先生淵源錄
					松沙先生門人	沙上門人錄
19	金永默	1865	順天	學報 筆陣	李恒老, 柳重敦, 朴胄淳	
20	崔鍾元	1856	益山	會員	田愚	華嶠淵源錄
21	丁翼燮		益山	會員	李恒老, 崔益鉉, 丁大睞	槩溪淵源錄
22	尹相鎬	1891	益山	會員	尹秉河	盧沙先生淵源錄
23	鄭雲厦		益山	會員	李恒老, 柳重敦	槩溪淵源錄
24	鄭東植		益山	會員		南原鄉校衛聖契案

No	name	Birth year	native area	academic position	master name	source
		Death year				
25	鄭熙冕	1867	益山	會員	奇宇萬	盧沙先生淵源錄
26	蔡龍臣		益山	會員		華鳴淵源錄
27	李燉儀	1874	南原	會員	崔益鉉	華西學派忠義孝烈錄
28	金寅植		南原	會員	李恒老,金平默,柳重教	槩溪淵源錄
29	朴南圭	1889	南原	會員		南原鄉校衛聖契案
30	金正洙	1889	礪山	會員	奇宇萬,金權珎	盧沙先生淵源錄
31	林鍾煥	1894	全州	會員	崔秉心,李秉殷	華鳴淵源錄
32	宋鍾大		全州	會員	李恒老,朴文五	槩溪淵源錄
					朴文五 · 洪在龜	華西學派忠義孝烈錄
33	朴鳳來	1887	全州	會員		南原鄉校衛聖契案
34	金鍾振		茂朱	會員	李恒老,朴文五	槩溪淵源錄
35	朴魯源	1888	錦山	會員	奇宇萬	盧沙先生淵源錄
36	趙秉憲	1863	金堤	會員	李恒老,崔益鉉	槩溪淵源錄
37	金炳喜		萬頃	會員	崔秉心	華鳴淵源錄
38	李敦炯	1857	茂長	會員	田愚	華鳴淵源錄
39	金以權	1843	茂長	會員	奇正鎭	盧沙先生淵源錄
40	姜大永	1894	高敞	會員	奇宇萬,卞鍾嫻	盧沙先生淵源錄
					李恒老,崔益鉉,曹錫一	槩溪淵源錄
41	金永采	1869	泰仁	會員	金在纘	盧沙先生淵源錄

No	name	Birth year	native area	academic position	master name	source
		Death year				
42	申鉉德	1870	鎭安	會員	田愚	華嶠淵源錄
43	金炳圭	1892	井邑	會員	奇宇萬	盧沙先生淵源錄
					李恒老,崔益鉉,崔基性	藥溪淵源錄
					奇松沙宇萬門人	沙上門人錄
44	朴鍾善	1896	海南	會員	奇宇萬	盧沙先生淵源錄
45	奇儀鎭	1877	長城	會員	奇宇萬	盧沙先生淵源錄
46	金鍾鉉	1884	求禮	會員	奇宇萬	盧沙先生淵源錄
47	許業	1883	寶城	會員	奇宇萬,許鏞	盧沙先生淵源錄
					田愚	華嶠淵源錄
48	朴勝奉	1894	光州	會員	宋廷默,朴勝明	盧沙先生淵源錄
49	崔炳日	1886	務安	會員	奇宇萬	盧沙先生淵源錄
50	金漢昇	1891	麗水	會員	奇宇萬,白弘寅	盧沙先生淵源錄
		1946			李恒老,崔益鉉,白景寅	藥溪淵源錄
51	徐相台	1891	興陽	會員	奇宇萬	盧沙先生淵源錄

〈Table 8〉을 보면 한말 호남 유학의 전통을 계승한 유학자 집단이 호남학회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유학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1명의 유학자 가운데 전북 출신은 32명(63%), 전남 출신은 19명(37%)이며, 이 가운데 호남학회 임원진은 19명(37%), 일반 회원은 32명(63%)으로 각각 확인된다. 소지역별로는 전북 익산(8명) 이외에 남원(4명), 전주(4명), 해남(3명) 등지가 상대적으로 유학자 비중이 높았다. 이를 학과 별로 보면 노시학과 유학자 집단은 22명(43%), 화서학과 유학자 집단은 18명(35%), 간재학과 유학자 집단은 11명(22%), 향교 위성계와 청금록에 기록된 문인은 4명(8%)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6명(12%)은 복수의 문인록에 등재된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노사학과와 화서학과와 호남학회 내 비중이 작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들의 학맥에 따른 사승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노사학과 유학자들이다. 노사학과는 19세기 전반기부터 근대전환기를 거치면서 호남의 대표적인 학파로 발전한 문인집단이였다. 기정진을 종장으로 그의 문하에서 수학한 직전 제자로는 김석규, 정재규, 정의림, 조성기, 김한섭, 정시림, 오준선, 이최선, 김녹휴, 기우만, 기삼연, 이회석 등이 대표적이다.(한국사상연구회, 2000: 538-539) 호남학회의 노사학과 유학자 가운데서 기정진의 직전 제자로는 무장 출신의 김이권(金以權, 1843~?)이 유일하다. 재전, 삼전 제자 중에는 정의림 문하의 양회원(梁會源, 1878~?), 김녹휴 문하의 변승기(邊昇基, 1866~?), 이회석 문하의 최동식(崔東植, 1860~?)이 확인된다.

호남학회의 노사학과 유학자들의 사승관계 분포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우만의 위상과 영향력이다. 호남학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김정기(金正基, 1883~?)를 비롯하여, 이광수(李光秀, 1873~?), 윤채하(尹采夏, 1895~?), 정희면(鄭熙冕, 1867~?), 기의진(奇儀鎭, 1877~?), 박중선(朴鍾善, 1896~?), 김한승(金漢昇, 1891~1946), 서상태(徐相台, 1891~?), 김종현(金鍾鉉, 1884~?), 허엽(許業, 1883~?), 최병일(崔炳日, 1886~?), 김병규(金炳圭, 1892~?) 강대영(姜大永, 1894~?), 박노원(朴魯源, 1888~?), 김정수(金正洙, 1889~?)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허엽은 전우 직전 제자로, 강대영은 최익현 문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기정진 사후에 학파 내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 바로 기정진의 손자 기우만이었기 때문에 문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전남 출신은 16명(73%)이나 되고, 전북 출신은 6명(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볼 때, 호남학회 내 노사학과 유학자 네트워크는 전남 출신의 영향력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사학과와 지역적 영향이 전남 지역에 한정된다는 선행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박학래, 2015: 235)

둘째로 화서학과 유학자들이다. 화서학과는 19세기 전반기부터 근대전환기를 거치면서 재야의 대표적인 위정척사세력으로 발전한 문인집단이다. 이항로의 뒤를 이은 직전 제자로는 김평묵과 유중교가 있으며, 김평묵 문인으로는 홍제구와 최익현, 유중교 문인으로는 이근원, 유인석, 유중익 등이 있다.(한국사상연구회, 2000: 577) 호남학회의 화서학과 유학자 가운데서 이항로의 직전 제자로는 금산 출신의 유희열(劉禧烈, ?)과 남원 출신의 박해창(朴海昌, 1876~1933)이 있는데, 박해창은 전주 문인록에도 등록되어 있다. 재전, 삼전 제자 중에는 김평묵 문

하의 김인식(金寅植, ?)과 정규삼(鄭奎三, ?), 홍제구 문하의 송종대(宋鍾大, ?)와 정익섭(丁翼燮, ?), 박문오 문하의 김종진(金鍾振, ?), 유중교 문하의 이건호(李建鎬, ?), 민영직(閔泳直, ?), 정운하(鄭雲厦, ?), 유인석 문하의 박종완(朴鍾完, ?), 장두식(張斗植, ?) 등이 확인된다.

최익현 문하는 윤상오(尹相五, ?), 이돈의(李燾儀, 1874~?), 강대영(姜大永, 1894~?), 김병규(金炳圭, 1892~?), 김한승(1891~1946), 조병헌(趙秉憲, 1863~?)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강대영과 김한승은 기우만 문인록에도 등록되어 있다. 이 점에서 호남학회 화서학과 가운데 최익현 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최익현이 도 학계열 학자 가운데 고위관직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항일의지에 앞장서 그를 따르는 유생들이 많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화서학과 유학자 출신지 분포를 살펴보면 전북 출신은 15명(83%)이나 되고, 전남 출신은 3명(1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볼 때, 호남학회 내 화서학과 유학자 관계망은 전북 출신의 영향력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간재학과의 유학자이다. 간재학과는 19세기 전반기부터 근대전환기를 거치면서 기호 낙론의 학통을 계승한 기호학계 최대의 학파이다. 전우를 종장으로 그 뒤에서 수학한 직전 제자로는 김준영, 오진영, 최병심, 이병은, 성기운, 정형규, 송기만, 김택술, 권순명, 유영선, 전기진, 채용신 등이 있다.(한국사상연구회, 2000: 653) 호남학회의 간재학과 유학자 가운데서 전우의 직전 제자로는 남원 출신의 박해창(朴海昌, 1876~1933), 정해두(鄭海斗, 1896~?), 최종원(崔鍾元, 1856~?), 이돈형(李敦炯, 1857~?), 신현덕(申鉉德, 1870~?) 이 있다. 이 중 박해창은 이항로 문인록에도 등록되어 있다. 재전, 삼전 제자 중에는 최병심 문하의 김병희(金炳喜, ?), 임종환(林鍾煥, 1894~?), 이병은 문하의 최준식(崔俊植, ?)과 이시우(李時雨, ?)가 확인된다. 이들의 출신지 분포를 살펴보면 전북 출신은 10명(91%)이나 되고, 전남 출신은 1명(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볼 때, 호남학회 내 간재학과 유학자 관계망은 전북 출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재학과의 학문적 중심이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선행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박학래, 2015: 235)

넷째로 향교 위성계와 청금록에 기록된 문인이다. 남원향교위성계안은 남원향교에서 간행한 향교지로, 향교에서 작성한 유림 명부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호남학회 회원으로 박봉래(朴鳳來, 1887~?), 박남규(朴南圭, 1889~?), 정동식(鄭東植, ?) 등 3명이 확인되고 있다. 무안청금안은 무안군 향교의 유생들을 기록한 서책으로, 이 자료에는 호남학회 평의원 김형석(金衡錫, ?)이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익산 출신의 정동식(鄭東植, 1850~1910)과 남원 출신의 박해창(朴海昌, 1876~1929)이 송병선 문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호남학회 2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던 고재량의 경우 10대 후반에 봉서 유신환의 문인인 한장석(韓章錫)에게 수학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뚜렷한 사승관계는 없지만 유학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다양한 계몽운동을 전개한 이기(李沂, 1848~1909)를 비롯하여 낙안 출신의 나철(羅喆, 1863~1916) 등도 유학자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나철은 김윤식(金允植)의 문인으로 오기호(吳基鎬, 1865~1916)와 함께 대중교의 창립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략 56명에 이르는 인사의 학맥과 사승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승관계를 해명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호남학회 유학자들의 가계와 교유관계, 교유를 통한 상호작용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근대전환기에 탄생한 호남학회는 『호남학보』를 매개로 그들이 구상하는 계몽운동의 목표의식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들 지식인 공동체는 근대전환기를 거치면서 당시 호남지방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것은 근대전환기와 그 이후에도 신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이 차례로 이루어진 데서 확인된다. 그렇지만 이들이 현실에서 추진한 계몽운동은 대부분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들이 힘을 쏟은 주요 활동들은 임원진을 개선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었으며, 그 기저에는 집단적, 개인적 차원의 기득권이나 계급적 이익을 고수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호남학회의 핵심 인물들은 학회의 운영과 방향을 두고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논쟁은 모호하고 절박한 시대에 학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학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의 성격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이로 보아 호남학회의 지식인 공동체는 사실상 호남이라는 지역을 근거지로 두고 생겨난 이익 집단 및 정치 단체로서의 성격에 더 가

까웠다고 할 수 있다.

호남학회 회원들은 전·현직 관료, 한말 유학자, 자강단체의 회원, 자신회(自新會) 회원, 신식학교 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호남학회가 해산 뒤 각자 이합집산으로 분화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호남학회 회원 가운데 특기할 것은 유학자 집단의 활동이었다. 이 유학자 집단은 호남 유학의 전통을 계승한 바탕 위에서 근대적인 학문 활동과 사업을 수행하였고, 자신들을 계몽적인 지식인으로 위치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은 호남학회와 지역 공동체를 견인하는 중심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신학문 수용자의 형상을 보였다.

이들 유학자 집단의 학맥은 노시학과 22명, 화서학과 18명, 간재학과 11명, 향교 문인 4명으로 파악되었다. 제자 구성에서 보면 노시학과 유학자는 기우만, 화서학과 유학자는 최익현, 간재학과 유학자는 전우의 문인이 많았고, 대부분이 재전, 삼전 제자로 분류되었다. 호남학회에 근현대 유학자 집단이 결집된 배경에는 시대 변화에 따른 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특정학파의 종장 사후에 특별히 행적을 지도할 만한 스승이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이 연구가 유학자 지식인의 유학적 관계망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학자 지식인 간의 교유관계나 교유를 통한 상호작용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는 공론장의 특질을 밝히기 위한 『호남학보』의 내용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드러내는데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의 별고로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진균. 2012. “근대계몽기 해학 이기의 한문인식”, **반교어문연구**, 32, 259-286.[Kim Jin-kyun, 2012. “Yi Ki's recognition of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Modern Enlightend age”, *Journal of Bangyo Language and Literature*, 32 259-286.]
- 박중혁. 1995. **한말 격변기 해학 이기의 사상과 문학**, 아세아문화사.[Park jong-hyeok, 1995. *Hanmalgyeogbyeongihaehakigiuisasanggwamunhak*, Aseamunhwasa.]
- 박찬승. 1994. “한말 호남학회 연구”, **국사관 논집**, 53, 129-180.[Park chan-seung, 1994. “A Study on the Honam Hakhoe”, *Guksagwannonjib*, 53, 129-180.]
- 박학래. 2015. “근대이행기 호남 유학의 지형-도학계열 문인집단의 형성과 전개에 주목하여”, **한국인문사연**

- 구, 24, 219-251.[Park Hak-rae. 2015. "The Topography of Honam Confucianism in the era of Modern transition - Focusing on the unfolding and formation of literati group in the Learning of Dao-", *Journal Ofpan-Korean Philosophical Society*, 24, 219-251.]
- 원재연. 2015. "근대이행기 호남유학자 이기의 국토인식과 자강론", **통일인문학**, 63, 167-195. [Won jae-yeon. 2015. The Recognition of National Land and the Theory of Self-Powerful Country, by a Confucianist of Jeon-Ra Province Yi-ki(李沂, 1848~1909), in Modern Transitional Times,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63, 167-195.]
- 이현중. 1972. "호남학회에 대하여", **진단학보**, 33, 59-79.[Lee hyoun-jong. 1972. A Study on the Honam Hakhoe, *Jindanhakhoe*, 33, 59-79.]
- 정승교. 1998. "이기의 사상에서 '공(公)'의 의미", **역사와 현실**, 29, 한국역사연구회, [Jeong Seong-kyo. 1998. "Igiui sasangeseo Gongui uimi", *YOKSA WA HYONSIL*, 29.]
- 정훈. 2019. "근대 계몽기 <호남학회월보>의 특성 연구",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Jeong Hun, 2019. "A study about the features of Journal of the Honam Hakhoe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Gukeomunhak*, 71, 301-328.]
- _____. 2017. "해학 이기의 시에 나타난 근대성과 문학적 표현양상 연구", **문화와 융합**, 39(4), 한국문화융합학회, 339-370.[Jeong Hun, 2017. "A Study on the Modernity and Forms of Literary Expression in the Hae-Hak Lee-Gi's Poetry", *Culture and Convergence*, 39(4), 339-370.]
- 한국사상연구회. 2000. **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Hankooksasangyeonguhoe. 2000. *HThe Schools of Korean Confucianism*, Yemunseowon.]
- 홍인숙·정출현. 2010. "〈대한자강회월보〉의 운동성과 지향연구-자강회 내부의 이질성 그룹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0, 353-381.[Hong in-sook · Jung chool-hun. 2010. "Political Movement and Orientation of the Daehan Self-reliant Association (DSA)'s Monthly Reports: Disparities among its Heterogeneous Subgroups", *Dongyang Hanmoon*, 30, 353-381.]
- Habermas, Jurgan, 1961. *Strukturwandel der Offentlichkeit*,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향태목

현재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전공분야는 한국현대소설로,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 근현대소설과 지역문학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일제하 군산 지역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한국전쟁기와 1950년대 군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양상 고찰", "영화인 이만홍의 영화계 활동 연구" 등이 있으며, "표지목차로 보는 전북지역잡지(신아출판사, 2019)", "군산학의 지형(군산대 인문도시센터, 2019)" 등의 공저가 있다.

E-mail: khtmg@hanmail.net

Abstract

The Public Discourse and Confucian Network of Honam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HWANG Tae-Muk

Research Prof. Jeonju Universit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Honam Society, many meaningful people who visited the Honam area longed for restoration of national rights in the situation where sovereignty was being seriously threatened. And at the time the intellectuals of Honam with such aspirations participated in the enlightenment group and developed various activities for the recovery of the national fortune. In this situation, the financial knowledge of Honam organized the Honam Society for the purpose of enlightenment and promotion of new education in Honam area. As members began to gather based on the Honam Society, the intellectual community that shared specific orientations based in Honam became a facade. This study intends to describe the activiti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Honam Society activities to form public spheres.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s to develop discussions focusing on the public opinions expressed by those who were active as major communication actors in the public sphere.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nature of public sphere through the Confucian network of intellectual communities formed around Honam Society and Honam Hakbo. This work will be an opportunity to advance the research of the public sphere of Honam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Key Words] Modern transition period, Honam society, Honam wolbo, Public sphere, Confucian network

